

2.16(월) 16:00부터 사용해 주십시오



보도자료

▶근로자건강보호과 과장 임영섭
사무관 김정연

TEL : 02-6922-0955

FAX : 02-6922-0973

▶ 2009. 2. 16 배포

▶ 총 3 쪽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최신자료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

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의자 비치 확산

○ 노동부는 2.16(월) 전국 15개 대형 유통업체 소속 427개 매장 중 111개 매장에서 계산원, 안내원 등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의자를 비치하였으며, 나머지 매장도 금년 내에 의자를 비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.

○ 조사결과, 111개 대형매장에서 의자를 비치하고 이중 4개 매장은 근로자가 앉아서 계산할 수 있도록 유럽식의 좌식 계산대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.

※ 이마트 안성점, 보라점, 성수점, 세이브존 노원점

- 그 외에도 피로예방매트 설치(4개 유통업체), 건강체조 및 교육 실시(4개 유통업체),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건강 진단 실시(2개 유통업체) 등 개선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.

○ 또한 아직 의자를 비치하지 않고 있는 대형 매장은 금년 내에 모두 의자를 비치할 계획으로 있으며

※ 다만, 2개 유통업체의 식품매장의 경우 장소가 협소하여 의자를 비치하지 못하고 피로예방매트를 지급하였으며 향후 점포 리모델링시 의자를 비치할 예정임

- 이마트, 신세계백화점 등은 향후 리모델링 매장 또는 신설 매장을 대상으로 좌식계산대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노동부는 지난해 8월 「서서 일하는 근로자 건강보호대책」을 수립하여 사업주 간담회, 관리자교육, 홍보활동 등 의자 비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.

※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교육 845명, 간담회 20회 실시

- 특히, 지난 해 10월 대형 백화점 및 마트 사업주 간담회를 개최하여 서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작업개선을 촉구하고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한 바 있다.

○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'09.2.16.(월) 우수 개선 사업장인 이마트 성수점을 방문하여

- 계산대 개선 사례를 시찰하고 직접 계산원 업무를 체험하는 등 관련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다.

[방문 개요]

□ 방문사업장: 이마트 성수점

- 소재지: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성수2가 333-16
- 이마트: 총 12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업계 1위 기업
- 근로자수: 전체 12,302명, 성수점 136명
- 국내 유통업체 중 처음으로 좌식 계산대를 개발, 기존 매장의 리모델링을 통해 설치한 첫 사례임('08.12)

□ 방문 목적

- 서서 일하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좌식 계산대를 도입한 우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를 격려

□ 프로그램(총 90분 소요예상)

- 브리핑 청취 및 사업주 면담
- 계산대 개선 사례 시찰
- 장관님의 일일 계산체험
- 근로자 면담
- 휴게실, 식당 등 근로자 복지시설 시찰

- 노동부는 앞으로도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를 위한 의자 비치, 좌식계산대 설치,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관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·지도하고 단계적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.